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17년 포어 §

다시 거룩한 교회로!
(롬1:17, 레19:2)

十 행동 지침

- 1. 말씀과 비전으로 하나되는 교회
- 2.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
- 3. 기도와 전도의 사명을 다하여 부흥하는 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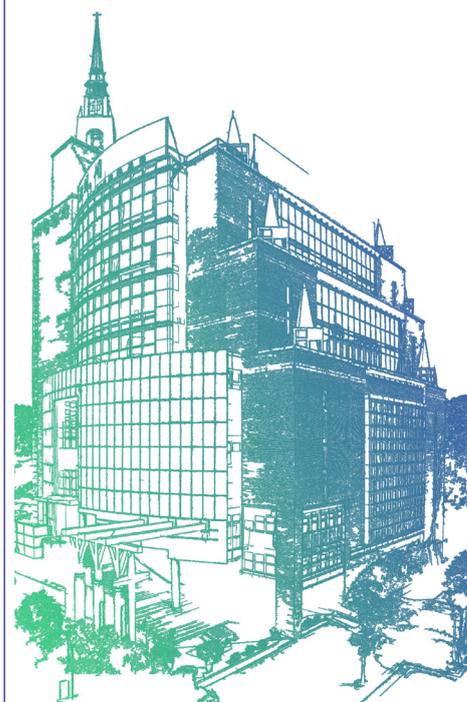
발행인 : 박노철(안식년)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www.seoulchurch.or.kr>

 **조선지서 강해 - 아모스**

하나님이 보시는 종교인들 II

(아모스 4 : 6 ~ 5 : 5)

원로목사 **이종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벤엘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벤엘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으로 야곱이 하나님의 단을 쌓았던 곳입니다. 그러나 타락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임재를 막았고, 그 곳에 오시는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였습니다. 잘못된 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무섭습니다.

1. 길갈로 들어가지 말라

“벤엘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벤엘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5:5).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건너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위해 요단강을 건너 다음 기념비를 세운 곳입니다. 다시 말해서 길갈은 하나님의 선민 됨을 재확인한 곳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출생한 아이들이 할례를 받지 못했으므로 이들에게 할례를 행하기로 하고 유월절을 맞이해서 출애굽하던 그때를 감사하는 특별제사를 지내던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에 머무는 동안 하늘로부터 떨어지던 만나가 아닌 가나안의 곡식과 열매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길갈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첫 관문이고, 약속을 얻게 된 상징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약속의 땅인 길갈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보증하셨던 길갈이었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길갈은 더 이상 하나님의 약속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2.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5:5).

아모스 선지자는 지금까지 북이스라엘의 배신에 초점을 맞추다가 이번에는 브엘세바를 언급하면서 남유다에도 죄악이 퍼져 나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의 세번째 종교도시로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등 위대한 세 족장들과 연관이 있는 장소입니다. 창세기 21장 31절에 의하면 아브라함은 브엘세바를 방문하여 이방인 아비멜렉과 더불어 맹세를 하였습니다.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장관 비골은 아브라함에게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창21:22)라는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종인 것을 알고 이와 같이 축복의 말을 한 것입니다. 이때 브엘세바는 영광의 도시였습니다.

또 이삭이 브엘세바를 방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삭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창26:24).

브엘세바야 말로 축복의 도시였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던 곳이었습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약속과 복이 브엘세바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각각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축복의 브엘세바에 대해서 본문에는 마치 장례식의 조문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처녀 이스라엘이 었드러졌음이여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움이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5:2).

약속과 소망의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집, 벤엘이 실패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던 약속의 땅 길갈과 브엘세바가 망한 것이 너무 허무하여 이들은 었드러져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허한 종교 생활, 이름만 가진 신앙생활, 하나님 없는 믿음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3. 하나님의 진노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4:12).

하나님이 아무리 벌을 내려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나라에 흉년이 오고 먹을 것이 없어서 가난해졌는데도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다(4:6).

하나님은 또한 재를 내리십니다(4:7-9). 추수기에 비를 내리지 않고 마실 물도 없어졌고 전염병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깨닫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전쟁을 일으키시어 성이 무너지는 안타까운 자리에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위선적인 헌신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섬기라고 하셨는데 형식과 위선과 외모와 외형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죄에 대해서는 점점 무감각해졌습니다. 실제로는 하나님을 멸시하면서 입으로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크게 일으킨 것입니다.

그들은 소리내어 제사를 지내지만 하나님은 이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오히려 진노하십니다. 이와 같이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죄에 무감각하며,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너희는 나를 찾으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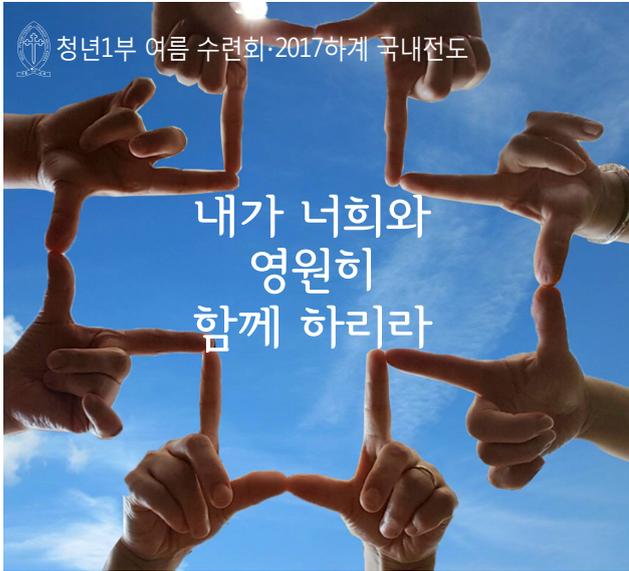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4:12),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5:4).

이와 같이 아모스선지자는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면 죽을 것이라는 경고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벤엘과 길갈과 브엘세바에는 가지도 말며 하나님을 바로 찾고 섬기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일윤 성도 (청년1부)

저는 이번 수련회에 선발대로 출발하여 7월 16일 주일부터 7월 20일 목요일까지 사역에 참여했습니다. 16일 주일에는 의료 선교팀을 도와드렸고 17일~20일에는 전도팀을 도와드렸고, 19일에는 잠시 정철웅 집사님께서 어르신들께 수액 놓아드리는 것을 도와드렸습니다.

이번이 제가 다녀온 첫 번째 수련회였는데, 그 전에는 느끼지 못한 것들을 많이 느끼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께도 배울 점들이 정말 많지만, 저와 같은 청년들과 함께 믿음의 사역을 하면서 서로 배우는 것 또한 정말 중요

하다는 것입니다. 이번 수련회에서 맘을 흘리며 함께 전도도 다니고, 지원팀을 도와 여러 일들을 하면서 제 자신이 성장해 나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전도 수련회는 저에게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될 정도로 너무나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베풀려고 다녀온 전도 수련회였지만, 오히려 제가 더 많이 받아가는 놀라운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체험을 할 수 있게 해 주신 목사님과 모든 사역 팀분들에게 너무나도 감사를 드리고, 또한 청년 1부 친구들에게도 정말 고맙다고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저를 이런 귀한 자리에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도 감사 드립니다.



정아영 성도 (청년1부, 어린이 사역 팀장)

조금은 낯설지만 그 어떤 곳보다 편안했던 고성 땅에서 어린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역을 하게 되어 너무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처음 어린이 사역팀을 이끌어 가게 되었을 때는, 솔직히 너무 두렵고 이 일을 감당 해 낼 능력이 되는 사람일까 하는 두려움과 막막함이 저의 마음을 어렵게 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너무 신기하고 놀랍게도 어린이 사역에 필요한 디자인, 음악, 그리고 교육 측면 등 모든 부분

에 팀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채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 아이에게라도 하나님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을 지닌 소중한 팀원들이 모이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 때 하나님을 전하는 사역은 걱정하고 전전긍긍 하며 내 능력으로 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채워 주신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성경공부 하며 말씀을 배울 때 반짝이던 아이들의 눈빛을 잊지 않고, 앞으로도 팀원들과 함께 아이들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송채원 성도 (청년 1부 서기)

이번 수련회는 저에게 너무나 뜻 깊은 경험이었습니다. 권사님과 집사님들을 따라서 더운 날씨에 전도를 했으며, 교회로 오시는 분들의 머리를 책임져 주시는 이미용팀 권사님들을 도와드렸으며, 정철웅 부장님께서 영양제 맞으시러 오시는 분들의 영양제 만드는 것도 도와드렸습니다.

이번 수련회는 제가 다녀온 수련회 중 제일 많은 사역을 경험했고 제일 많은 일을 했습니다. 더운 날씨 속에서도, 몇 명의 어르신 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지 않아도 권사님과 집사님께서 열심히 전도하려는 모습, 손이 떨려가면서 할머니와 할아버님께 머리를 손질해주시던 이미용팀 권사님들의 모습, 영양제 맞으시러 오신 모든 분들께 정성껏 영양제를 놓아주셨던 청년1부 부장님의 모습.

그 외 교회 안에서 제일 더운 공간인 주방에서 너무나도 맛있는 음식과 간식을 차려주셨던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진정한 섬김의 의미를 배운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 청년부원들도 각자 맡은 바를 열심히 하면서 섬기는 모습들도 보았습니다.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 같이 하나 되어 사역을 잘 마칠 수 있게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 드리고 저희 청년부를 도와주시고 뜻 깊은 경험을 하게 만들어주신 모든 집사님들과 권사님들, 장로님들과 목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소연 성도 (청년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고성 국내전도를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우선 너무나 부족한 저희를 주님을 전하는 일에 사용하여 주심에 너무 감사했고 저희의 능력으로만은 불가능하였을 일을 주께서 가능케 하심 정말 감사 합니다.

조금은 어수선한 분위기와 적은 인원에도 불구하고, 저희도 이번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을지 하는 마음들이 있었지만 그런 조그마한 의심마저 주께서 걷어가고 저희를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끝까지 그 고성 땅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고성은 복음전파가 절실했고 왜 주께서 저희를 그 땅에 보내려 하셨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사역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왔지만 그 곳에 있는 사람들이 주를 만나 믿음의 열매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는 저희들 되겠습니다.

김신영 성도 (청년부, 국내전도 회계 팀장)

감사합니다. 이 말밖에 나오지 않는 수련회였습니다.

출발 전부터 기도로, 물질로, 물품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셨고 가서 내가 이 받은 은혜를 어떻게 고성 땅에 전해야 할지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그러나 고성 땅에 가서 오히려 하나님께선 은혜를 더해 주셨습니다.

전도팀의 눈물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고 찜통 더위 속에서 식사할 시간도 없이 일하시는 이미용팀을 보며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통풍도 제대로 안 되는 비좁고 뜨거운 식당에서 구슬땀을 흘리시는 만나팀을 통해서 우리를 채우기 위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볼 수 있었습니다.

기도와 열심으로 함께 해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 드리고 이 모든 감사를 하나님께 돌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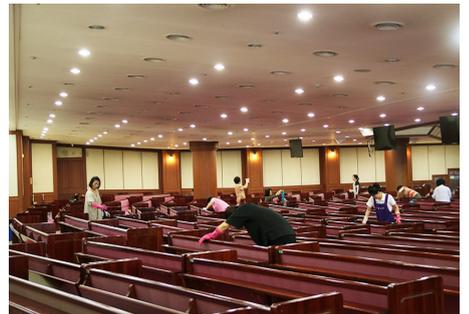


교회 대청소

지난 7월 15일(토)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스테반회(회장 : 송인수 집사) 주관으로 지하 1, 2, 3층 대청소를 실시하였다.

또한 제 1 권사회(회장 : 장호림 권사)와 제 2 권사회(회장 : 김찬진 권사)주관으로 본당 1, 2층을 청소하였다.

그 날 수고하신 모든 손길에 감사드립니다.



『한가정 한선교사 후원운동』 재개

매년마다 성도들에게 후원접수를 받았던 농어촌100교회 운동과 Vision2020 운동, 한 가정 한 선교사 운동 후원을 2017년에는 교회예산으로 집행할 예정이었으나 박노철 목사 측이 은행계좌의 비밀번호를 불법으로 바꾸면서 시작된 은행계좌 인출불능 사태가 지속되면서 서울교회가 파송한 12개국 71명의 선교사에 대한 후원이 6개월째 중단된 바, 선교 현장에서는 피눈물로 기도하며 후원의 재개를 기다리고 있다.

이에 서울교회 당회는 『한가정 한선교사 후원운동』을 재개하기로 결의하였다.

1구좌는 매월 일십만원이고, 형편에 따라 1/2구좌 (월 5만원)도 가능하며, 어린이/청소년은 1구좌를 월 5천원으로 하여 교회학교 학생들도 선교에 참여하는 기회를 갖게 된다.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무국으로 제출하기 바란다.

총회, 헌법해석 시행 권고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THE PRESBYTERIAN CHURCH OF KOREA

제101회 총회 주제: "다시 거룩한 교회로"(요한계 1:17, 레위기 19:2)

행정지원본부 03128 서울시 종로구 대치로3길 29, 309호(연지동,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전화: (02)741-4350/435212 전송: (02)6008-2982 담당: 윤미경 실장

문서번호: 예장총 제101-1062호
시행일: 2017. 7. 13.
수신: 서울교회 노문환 장로 외 16인
참조: 사기
계목: 호소문(간경)에 관한 회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문안드립니다.

1. 서울교회 노문환 장로 외 16인이 제출한 "총회장남께 드리는 호소문(3차) / 2017.7.10."와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하여 총회 임원회는 제101-10차 회의(2017.7.12)의 결의로 서울강남노회에 "헌법해석 시행 권고" 공문을 첨부와 같이 발송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예장총 제101-1049호 / 헌법해석 시행 권고(2017.7.13.)" 붙.

총 회 장 이 성
서 기 신 정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THE PRESBYTERIAN CHURCH OF KOREA

제101회 총회 주제: "다시 거룩한 교회로"(요한계 1:17, 레위기 19:2)

행정지원본부 03128 서울시 종로구 대치로3길 29, 309호(연지동,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전화: (02)741-4350/435212 전송: (02)6008-2982 담당: 윤미경 실장

문서번호: 예장총 제101-1049호
시행일: 2017. 7. 13.
수신: 서울강남노회장
참조: 사기
계목: 헌법해석 시행 권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문안드립니다.

1. "예장총 제101-450호, 헌법해석 통보(2017.1.11.)"와 "예장총 제101-947호, 헌법해석 통보(2017.6.8.)" 관련입니다.
2. 위 관련건에 의거하여 본 총회에서 첨부와 같이 귀 노회에 헌법해석을 통보한 바 있으나 귀 노회에서 헌법해석을 시행하지 않고 있어 혼란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3. 이에 총회 임원회는 제101-10차 회의 결의로 귀 서울강남노회가 총회 헌법시행 규정 제36조(헌법위원회의 구성, 권한, 집의내용, 헌법개정) 제6항에 의거하여 총회 헌법해석 통보에 대하여 헌법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시행할 것을 권고하니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예장총 제101-450호, 헌법해석 통보(2017.1.11.)" 사본.
2. "예장총 제101-947호, 헌법해석 통보(2017.6.8.)" 사본. 붙.

총 회 장 이 성
서 기 신 정

위 공문은 박노철목사가 안식년을 지키고 재시무 투표표를 받을 것과 박노철목사 측이 지난 5월 불법 선출한 15인 장로의 무효화와 불법 장로 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서울강남노회에 장로 교육을 중지할 것을 권고한 내용이다.

2017 여름 성경학교 · 수련회 은혜중에 진행돼

유아·유치부 : 오늘 7월 30일(주), 706호
유년·초등부 : 7월 28일(금)~29일(토), 아가페타운

| 부 서 | 일 시 | 장 소 | 주 제 | 강 사 |
|------|------------------|--------|--------------------------|---------|
| 유아부 | 7월 23일 (주) | 706호 | 예수님 따라 홀리! 사랑하며 Holy! | 강남희 전도사 |
| 유치부 | 7월 30일(주) 2~4시 | 702호 | | |
| 유년부 | 7월 28일(금)~29일(토) | 아가페타운 |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 | 최근영 전도사 |
| 초등부 | | | | |
| 청년2부 | 8월14일~15일(화) | 아가페 타운 |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 서준권 목사 |



세례 신청 안내

세례식: 8월 13일 (주일) 찬양예배 시

- 세례·학습 교육: 7월30일 (주일) 오후 2시
- 세례 문답: 8월 6일 (주일) 오후 2시
- 세례식: 8월 13일 (주일) 오후 찬양예배 시

세례, 유아세례, 개종, 입교, 학습을 받기 원하는 성도는 사무국으로 신청하기 바란다.

등 정

- 이종윤 원로목사: 25일(화) 한국 최초 Protestant 선교사로 칼 귀츨라프선교사가 1832년에 충남 원산도에 한문성경과 감자씨를 들고 와서 주기도문을 한글로 번역한 지 185주년이 되어 기념예배에서 설교한다
- 금주 식사제공: 김상식 집사 이순례 권사 가정 (범사에 감사하며)
정정 - 지난 주: 유남식 집사 강은경 권사 가정 (장례를 은혜 중에 마치고)
- 간식 제공: 장호림 임연주 김남옥 조현정(이관모)

서울 주간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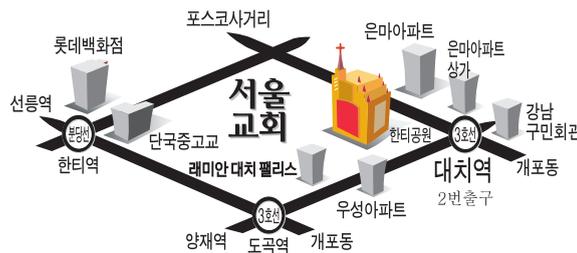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7월 23일(주일), 7월 30일(주일) 양일간 우리 교회에서 진행되는 유아부, 유치부 여름성경학교를 통하여 우리의 다음세대들이 예수님을 따라 서로 사랑하는 거룩한 자녀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 7월 28일(금)부터 29일(토)까지 아가페타운에서 진행되는 유초등부 여름수련회를 통하여 우리의 다음세대들이 말씀으로 은혜 받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 우리 교회가 온전히 회복되어 온 세상에 하나님 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 예배 및 집회

| 구 분 | 시 간 | 장 소 |
|-----------|-------------------|--------------|
| 주 일 예 배 | I 부 예 배 | 오전 9시 |
| | II 부 예 배 (영어동시통역) | 오전 11시 20분 |
| | III 부 예 배 | 오후 2시 |
| | 찬양예배 | 오후 5시 |
| | English Worship | 오전 11시 15분 |
| 수 요 예 배 | I 부 예 배 | 오전 11시 |
| | II 부 예 배 | 오후 7시 |
| 새 벽 예 배 | 오전 5시 30분(매일) | 본당 II, III 층 |
| 금 요 기 도 회 | 오후 8시 | 본당 II 층 |

■ 교회 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